

# “그저 허망...” 공항서 눈물로 새해 맞은 유가족들

### 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위패 앞서 헌화...일반 추모객도 협의회 “함께 힘 내자”...개인·단체 봉사자 ‘위로’ 잇따라

올해 첫날 무안국제공항은 비통함에 잠겨 있었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식구들의 유해조차 돌려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눈물을 마를 새 없이 쏟아냈다.

◇헌화대 국화수북...에타는 절규  
1일 오전 무안공항 합동분향소는 에타는 절규와 정제된 슬픔이 공존했다.

갑작스런 마지막 날을 통곡하며 보낸 유가족들은 이날 식구들의 영정 앞에서 또 한 번 오열했다.

국화를 올리고 그리운 이름을 불러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허망함에 유가족들은 텐트에 돌아와서도 통곡을 이어갔다.

일반 추모객들도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게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79명의 영정을 바라보며 묵념으로 닳은 기렸으나 이들 역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무안 주민 유석중(62)씨는 “피붙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날 같지 않아 왔다”

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순 없었지만, 남은 이와 떠난 이 모두 평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이 떡국 드시자”...수액 준비도  
오전 9시12분께 박한신 유가족협의회대표는 유가족들을 한데 모아 “뒤흠리는 거냐는 소릴 들을 수 있지만 새해 첫날인 만큼 떡국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말을 건넸다.

박 대표는 “어제 저녁 전남도와 봉사자 분들께 아무리 유족들이지만 떡국은 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 들어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유가족 중 노인이 많은데, 버틸 수 있도록 수액 맞는 시설과 의료를 요청했다”며 “정신적으로 공황이 올 수도 있으니 상담 가능한 트라우마센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표는 “여기까지 하는 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죄송하다”며 식구들을 돌려받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



참사 현장 방문 올새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애리 기자

기까지 유가족 모두 힘내자고 읊조렸다. ◇전국서 단체·개인 봉사자 잇따라  
무안공항에는 전국에서 온 단체·개인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참사 직후부터 텐트 지원 등에 나섰으며, 이날도 청소·배식 등 곳곳에 도움을 주며 유가족들을 도왔다.

개인 봉사자들도 잇따랐다. 일부는 김밥과 삶은 계란 등 먹거리를 나눴고, 몇몇은 손에 장갑을 끼고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역할은 달랐어도 같은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친 봉사자들은 떠나기 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글귀를 남

기기도 했다.

광주에서 왔다는 한 봉사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보았어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보태고 싶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말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했다. 모인 성금은 모금회 중앙회와 협의해 유족들 심리 지원 및 학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 광주시, 영락공원 화장장 2시간 연장

### 화장로 2회 증설...추모관 ‘특별안치실’ 지원도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영락공원 화장장 2시간 연장 운영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5차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일 점검과 함께 희생자 장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5차 지대본 회의에서는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화장장 현황을 파악해 공유하고 영락공원 화장장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8기의 화장로를 가동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회 증설, 총 58기의 화장로를 가동한다.

시는 광주시공사와 함께 영락공원 추모관에 별도의 안치실도 제공한다.

또 영락공원 안치를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직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부고를 안내한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 “이젠 편히 쉬길” 광주 합동분향소에 추모 발길

### 해맞이 대신 이른 오전부터 희생자 애도...‘안전 사회’ 한목소리

“새해가 밝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네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울 한해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이자 2025년 첫 날인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오전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맞이 대신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화를 들고 차례로 줄을 서 제단에 헌화한 뒤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자녀와 함께 온 한 부부는 제단 앞에서 기도했고, 이후 자녀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뒤이어 차례를 기다리던 네 살배기 아이가 “엄마, 여기 꽃이 많아요”라며 궁금한 듯 묻자 어머니는 “그만큼 많

은 사람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광주 북구에서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김모(50대)씨는 “모든 국민이 한마음일 것이다. 뜻밖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매년 사고가 난 뒤에야 답을 찾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하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온 정성호(33)씨는 “분향소가 설치되면 바로 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새해 아침 일찍 희생자들을 추모하러 왔다”며 “올해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무탈하게 지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추모객 중 일부는 국화 사이로 음료, 과자, 인형 등을 올려두고 묵념하기도 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조인철·양부남·민형배·이혜식·김태선 국회의원들도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이승의 번잡함 다 털어내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이후 시간이 지

나수록 추모객들은 더욱 늘어났고, 한 때 300여명의 시민들이 20m가 넘는 긴 줄을 이루며 조문 차례를 기다렸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5천여명의 시민이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기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별취재반=주성학 기자

## 광주 사이버분향소도 애도 물결

### 시, 누리집에 개설...헌화·추모글로 명복 빌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광주 사이버분향소에도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희생자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에 ‘사이버분향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헌화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다.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1일 오후 3시 기준 헌화 1천727명, 추모글 825개가 달렸다.

추모글은 “여행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순 없었지만 가슴 깊이 애도한다”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41 해질 17:32

🌙 달뜨기 09:38 달지기 19:51

☀ 춘천 -7/5

☀ 서울 -2/4

☀ 대전 1/8

☀ 전주 -3/7

☀ 목포 -1/7

☀ 울산도 2/7

☀ 부산 3/11

☀ 광주 -1/8

☀ 대구 -3/10

☀ 제주 3/10

광주	구름조금	-1/8
목포	구름조금	2/7
여수	맑음	3/10
나주	구름조금	-2/8
완도	구름조금	2/10
구례	구름조금	-2/9
강진	구름조금	-1/10
해남	구름조금	-1/9
장성	구름조금	-2/8
보성	구름조금	-2/9
순천	구름조금	-1/10
영광	구름조금	-2/7
진도	구름조금	2/8
흑산도	구름조금	3/8
고흥	맑음	-1/11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 빨래 60   🚗 세차 80   🏃 운동 50

감기 조심해요   야외근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실내운동 즐겨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면바다(북)	0.5-1.5
	면바다(남)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0.5
	면바다(동)	0.5-1.5
	면바다(서)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3:18	08:41
	16:10	21:25
여수	10:55	04:11
	22:53	17:00
동동	11:38	05:08
	23:31	18:11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월 3일(금)	☀ (-1/4)	☀ (-5/2)	☀ (-2/4)	☀ (-2/5)	☁ (6/8)
4일(토)	☀ (-2/6)	☀ (-5/4)	☀ (-4/6)	☀ (-6/6)	☀ (4/8)
5일(일)	☀ (-2/7)	☁ (-1/6)	☁ (0/7)	☀ (-3/7)	☀ (4/11)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김지사 “의료·심리·법률상담 최선”

### 전남도, 유가족 “가짜뉴스 조치” 정부에 요청 반영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오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생계나 보상 문제와 같은 법률 상담, 안전 등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

플이 큰 유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는 일 없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의료·심리·법률 상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즉시 사

고수습·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들을 위해 무안군과 함께 1대1 전담 운영을 통해 신속한 DNA 검사 등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되도록 했다.

현장 교통상황실에서는 시외버스와 서울 등 버스 9대를 지원해 피해자가 가족 숙박과 분향소 방문 편의를 제공하

고 유가족 차량 무상 주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피해자 가족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같은 날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SNS, 쇼츠, 짤방 등에서 사고와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나와 있어 사고 충격으로 힘든 유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취재반=양시원 기자

## 광주시의회 “광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市교육청, 참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1일 “정부는 조속히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유가족 조중·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단은 이날 임정문을 내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며 “무안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참사 희생자 중 85명이 광주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단은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조속히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원단은 또 “정부가 재해구호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국가 예산을 지원할 때 차별이 없도록 광주시를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원단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막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혐오 발언을 퍼뜨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일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참사로 학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리고 현장 맞춤형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에 들어갔다.

학생 희생자가 발생한 S중학교에서는 학급 단위로 애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일에는 D초등학교에서 동의한 학

생에 한해 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고 영상 등을 보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Wee클래스-Wee센터·병원형 Wee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체계화하고 동·서부, 광산 Wee센터의 대상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을 병행 중에도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특별취재반=김다이 기자